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 품질향상 방안

- 정보통신용어 통일화 -

이홍렬 / TTA 표준본부 정보기술표준부

1. 배경

- 가.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 환경下에서 국내 정보통신 관련 각종 표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표준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통일화, 한글표준화 요구 점증
- 나. 선진 첨단기술 도입과 함께 유입되는 외래 정보통신용어의 국역화 및 순화
- 다. 정보통신기술용어의 통일화·표준화로 통신기술 선진화를 유도하고 대외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 대두
- 라. 국내 정보통신 관련 각종 표준의 품질을 향상시켜 표준의 사용도 제고
- 마.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일반 국민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순화용어로 표준화 추진 필요
- 바. 정통부가 중심이 된 범부처간의 지속적인 정보통신용어표준화의 적극적 추진 요구 점증

2. 국내외 동향

-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용어표준화 활동
ITU의 용어표준화 활동은 CCV(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용어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CCV의 구성 목적은 ITU내의 권고들에 대한 용어 및 정의의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CCV의 연구범위

- 전문용어에 대한 업무의 조정 및 용어 정의
- 권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제·개정
- 기술용어에 대한 ITU 및 타 표준화기구와의 연락업무
- 약어 및 두 문자어를 포함한 용어 정의 등이다

- 연구수행 방법

연구수행은 각 연구위원회에서 용어 및 정의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정하고, 연구위원회 연락자로서 특별조사보고자를 임명하여 수행하며, 특별조사보고자는 상이한 언어 및 기술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위원회는 권고내에 수록된 용어를 검토하고, 정의하거나 설명하여 권고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연

구위원회가 동일한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에 관련된 연구위원회는 수용가능한 용어 및 단일 정의를 선택하고자 노력한다.

사무국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새로운 용어 및 정의를 수집하여 CCV에 제공한다. CCV에서는 용어 정의를 위해 특별조사 보고자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회의를 주선 한다.

연구위원회, 주관청 및 기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용어정의 및 관련 주제에 대한 기고서를 CCV에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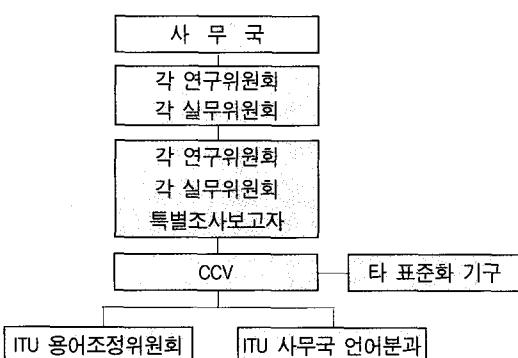
ITU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기통신 관련 용어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표준화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 용어정의를 위한 특별조사보고자의 책임

특별조사보고자는 소속된 연구위원회의 실무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연구위원회 의장, 타 연구위원회의 특별조사보고자, CCV가 위임한 용어정의 및 관련주제를 연구한다.

또한, CCV와 공동으로 자신의 소속 연구위원회 및 타 연구위원회의 용어정의 및 관련주제의 조정에 책임을 맡고 있으며, 타 표준화기구 와의 협력시 소속연구위원회와 CCV간의 연락책임을 맡고 있다.

- CCV 연구수행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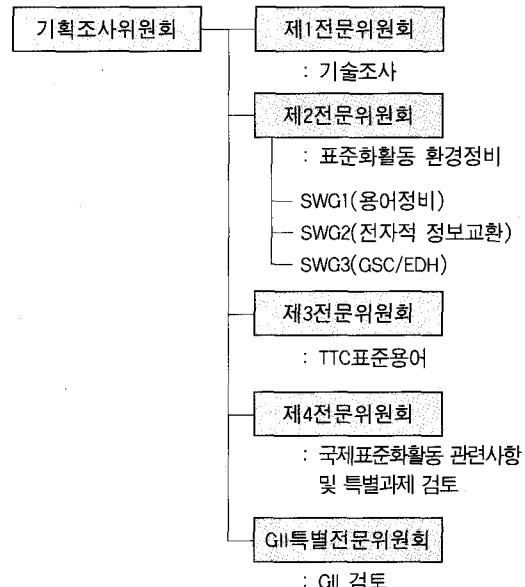


나. 일본의 용어표준화 활동

일본 TTC의 용어표준화 활동은 TTC의 기획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아래와 같다. TTC의 용어표준화 관련 위원회 활동은 기획조사위원회 산하의 제2전문위원회/제1부실무반(SWG1)과 제3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2전문위원회의 산하에 3개의 부실무반(SWG)이 있는데, 제1부실무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TTC 표준의 용어표준화
- 용어 정의 명확화
- TTC 표준의 질적 향상
- 표준화 작업의 효율화
- TTC 표준용어의 정비
- TTC 기획조사위원회 조직



세부 검토내용으로는 잡정용어 분석자료 작성, 신용어 등록, 용어데이터베이스 추가보완, 용어



집 원고 작성, 용어정비지침 개정안, 디스켓 또는 CD-ROM 용어집 발간, 용어 추출, 번역어 검색, 용어의 일괄 수정 지원을 위한 TTC 표준 용어 운용관리시스템, 보완시스템 제공 등이다.

제3전문위원회에서는 제·개정 표준에 관계되는 용어표준화 심의, TTC 표준용어집의 잠정용어 표준화 심의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역이다. 세부 수행내용은 신규 용어 및 용어변경에 있어서 각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의뢰한 시점에서부터 심의를 진행하며, TTC 표준 용어집에 사용되는 신규 용어 및 심의용어에 대한 심의를 하여 계속 보완하고 있다.

다. 기타 기구의 활동

ISO의 경우는 SC1(어휘)에서 용어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IEC의 경우는 IEV(국제전자기술 용어정의)라는 용어관련 출판물이 있다.

IEV와 관련 제1기술위원회가 전기통신 용어 정의를 담당하고, 제3기술위원회에서 다이어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자기호와 단위에 대해서는 제25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라. 국내의 용어표준화 활동

국내에서는 용어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분야(예 : 선로, 전송 등)의 동일한 용어에 대해 동일하게 국역·표기해야 하는 용어가 제각각 다르게 혼용되고 있어서 용어의 통일화·표준화는 어느 분야보다도 특히 표준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관련 활동으로는

- '80년대 체신부가 한국통신기술연구소(현 ETRI)에 수년간 연구과제화 함.

- '90년대 우리 협회가 용어표준화 사업을 국책과제로 수행하여 제3판 정보통신용어사전을 '97년에 발간하게 되었으며, 3개부처(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국립기술품질원)가 합의한 "정보통신 용어 표준화 공동 추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개부처에서 추천하여 구성된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위원회의 검토, 심의를 거친 표준용어 2,556개가 18개 분야별로 분류·명시 되었음.
- 우리협회 SC2/TSG11(신호방식 연구위원회)에서는 HAN/B-ISDN 사업내에서 용어표준화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용어집을 작성하였고, '94년부터 기획연구위원회 산하에 용어표준화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였음.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안) 관련 용어 및 약어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에서 정리함.
- 개방형컴퓨터연구회(OSIA)에서 OSI 관련 한글용어 대비집을 작성하여 계속 보완 중.
-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천페이지가 넘는 과학기술용어집을 발간함.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내 용어 관련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지역간 표준화기구와도 연계되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야 함.

3. TTA 정보통신 표준용어 대역집 발간

정보통신 분야의 용어 표준화를 위해 기제정된 TTA 단체표준, KCS, KIS표준에서 사용한 용어를 중심으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며 우선 상기한 표준내의 정의가 된 용어를 수집하여

PC에 입력 후 sort하여 출력후 우리말화 하는 과정에서 분야와 내용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화 하기가 어려운 용어를 제외하고, 동일 분야의 동일한 용어가 임시방편식으로 번역되어 각양각색으로 혼용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TTA 정보통신 용어·약어 대역집의 작성, 발간이 요망되며, 용어정비 T/F팀을 구성하여 내실있는 용어통일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한다.

4. TTA 용어통일화·표준화 절차(안)

TTA정보통신 용어·약어 대역집의 작성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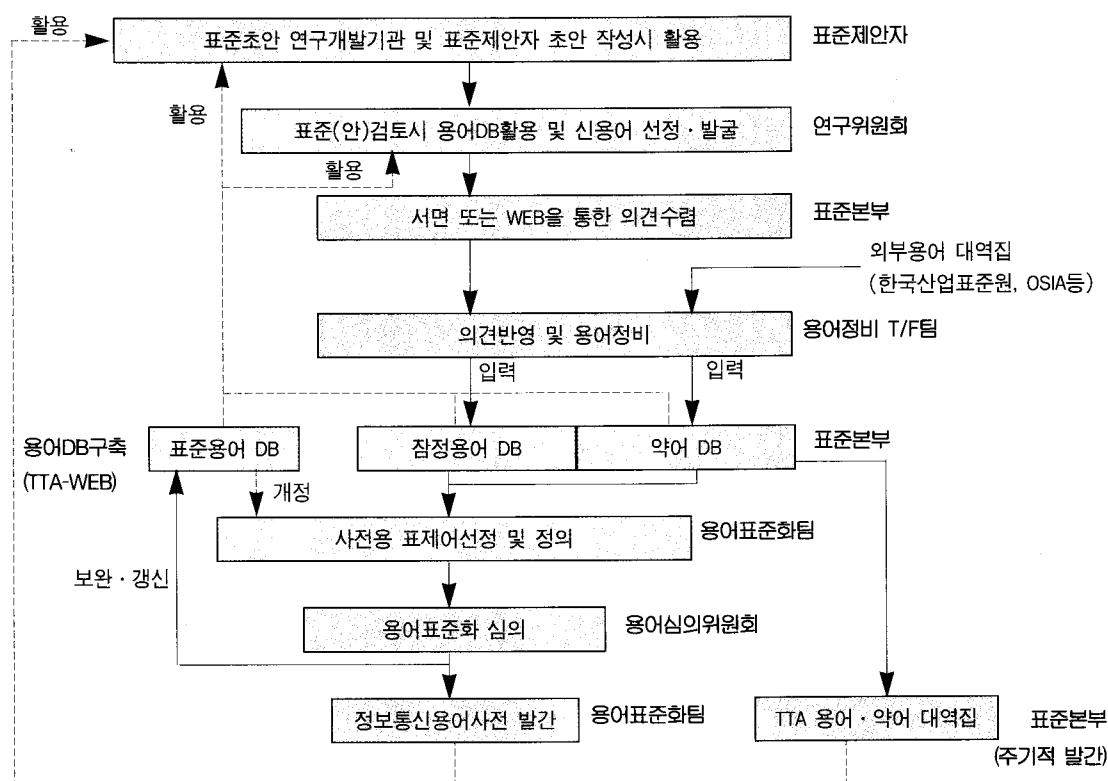
표준안 작성시에 기준이 될 수 있고, 각종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 상황에서 TTA 용어통일화·표준화 절차(안)은 아래와 같다.

가. TTA 용어통일화·표준화 절차(안)

- 업무흐름

- TTA에서 정보통신용어사전의 표제어 중심으로 표준용어 DB, TTA단체표준, KCS, KIS표준 등에서 사용한 용어, 약어 중심으로 잠정용어 DB 및 약어 DB를 구축(TTA WEB)
- 표준제안자 초안작성·연구위 검토시 DB활용 및 신용어 선정·발굴

용어통일화·표준화 절차 흐름도(안)





- WEB을 통한 의견수렴
- 용어정비 T/F팀(의견반영 및 용어정비)
- 잠정용어 및 약어 DB 개선
- 용어심의위원회 표제어 심의(용어표준화팀)
- 표준용어 DB 개선
- TTA 용어·약어 대역집(주기적 발간), 용어 정의 및 사전 발간(용어표준화팀)

나. 용어정비 T/F 팀 운영

- 임무
 - 각 연구위원회로부터 제안된 표준용어 원안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잠정표준용어(안)을 작성
 - 전문적 입장에서 검토
 - 동일한 분야의 용어 통일화 및 조정
 - 잠정용어(안), 보류용어의 구분
 - 적용 권장 우선 순위
- 운영
 - 잠정표준용어 원안 검토시 제안 연구위 등 의견을 존중
 - 필요시 관련 연구위 등의 자문을 요청
 - 표준용어 원안의 심의 결과
 - 잠정표준용어(안) : 부적합한 사항 수정, 권장 순위 조정
 - 단일 표준용어화가 어려운 용어 :
 - 유사 용어간에 사용 우선 순위를 두어 조정
 - 적용분야를 명확히 하여 한정 사용

다. 용어 구분

- 표준용어 : 용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표준 용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용어
- 잠정용어 :
 - 검토결과 임시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

- 단, 일정기간 경과후 문제제기가 없으면 표준용어(안)으로 하고 문제제기가 있으면 재검토
- 보류용어 : 용어정비 T/F 팀에서의 심의 결과 사무국으로 반송되는 용어로서
 - 검토 이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
 - 검토 중 큰 수정을 요하는 것
 - 판단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
 - 기타, 보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라. 잠정표준용어(안) 검토 기준

잠정표준용어(안) 제정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검토기준
 - 잠정표준 용어(안)으로서 받아들여도 좋은가?
 - 단순한 번역어 수준이 아닌가?
 - 전문 분야의 용어로서 적절한가?
 -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문맥상 적절한가?
 - 원어에 너무 구애받고 있지 않은가?
 - 다른 용어와의 혼동 가능성은 없는가?
 - 무리한 한자어(조어)가 아닌가?
 - 단순한 외래어 표기가 아닌가?
 - 용어 형식이 명사형 및 단순형으로 되어 있는가?
 - 기존 용어(KS, 학술용어, 기제정된 용어)와의 조정 필요성은 없는가?
 - 용어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가?
 -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 약어 표현이 있는 경우 용어 및 약어 양쪽을 구비하고 있는가?
 - 과생어, 동의어, 유사어 등이 존재하는가?
 - 문교부 고시 외래어의 표기 원칙에 부합하

는가?

- 정의문은 긍정형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마. 용어 사용방법

• 용어의 표현형태

- 단어 : 문법상의 뜻, 기능을 가지는 언어의 최소단위 (예 : '전환', 'Change over')
- 복합어 :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따로 한 단어를 이룬 말
(예 : '신호링크', 'Signalling link')
- 약어 : 어떤 말을 간략하게 쓰는 말
- 구 : 문장중의 한 단락(통상 2개 단어이상의 통합)으로서 문장을 이루지 않는 것
(예 : '부하분산을 위해', 'in performing load sharing')

• 용어의 형식

- 기본적으로 명사형 및 단수형
- 기본용어(KS, 학술용어, 기 제정된 표준용어 등)는 우선적으로 사용
- 용어에 약어표현이 있는 경우 용어와 약어 양쪽을 모두 참정표준용어(안)으로 인정
- 파생어, 동의어 및 유사어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한글로 표시하는 이외의 참정표준용어(안)은 문교부 고시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름

바. 용어 분석 기초자료 작성

• 목적

용어통일화·표준화 작업의 기본 절차로서 각 연구위에서 신규 용어 또는 어의의 수정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 기본 자료를 작성함.

• 작성내용

해당용어, 약어, 뜻, 출처, 사용예 등

용어(우리말)	원어	약어	뜻	출처	사용예	비고

- 용어 (우리말)

- 용어통일화·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용어를 우리말로 기록
- 적절한 우리말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원어 등을 사용할 경우는 비워둠

- 원어

- 용어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용어의 원어를 기록

- 약어

- 해당 용어의 약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기록

- 뜻

- 해당 용어의 뜻(의미)을 기록

- 출처

- 해당 용어를 발췌(또는 인용)한 출전을 기록

- 사용예

- 해당 용어의 사용예를 우리말 또는 원어로 기록

- 비고

- 해당 용어에 대해 기타로 언급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사항 정리

5. 결 론

정보통신 관련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통신 관련 각종 표준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통일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 1991년부터 다년간 국책과제로 수행한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범부처간의 지속적인 용어표준화 추진을 통해 전국



민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표준정보통신용어
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TTA 정보통신 용어 · 약어 대역집 주기적
발간
- TTA 용어통일화 · 표준화 절차 작성 · 시행
-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발간 · 보급 

